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중학생 주변인의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

고아라* · 최새은**¹⁾

용인중학교* · 한국교육대학교**

Study o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

- focusing on the empathy of middle school students -

Ko, Ahra* · Choi, Saeun**¹⁾

Yongin Middle School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nessing cyberbullying and their types of behaviors after witnessing and to examine the role of empathy affecting the behaviors of bystanders of cyberbullying.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595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Gyeong-Gi region. Results show that 61.2% of the respondents report the witness of cyberbullying. Among which cyber slander i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utcast, sexual harassment, and extortion. The behaviors of bystanders who witnessed cyberbullying are categorized into spectating, defending, agreeing, or doing nothing. When it comes to the role of the students' empathy, findings show that the 'empathic concern' and 'personal pain' -, parts of emotional empathic abilities, can significantly influence behaviors of cyberbullying bystanders. These findings not only call the attention to the seriousness of cyber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but they also suggest the implication that emotion empathy education is required along with emotion control education.

Key words: cyberbullying, bystanders, empathy, middle school students

1) 교신저자: Choi, Saeu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 28173, Korea
Tel: +82-43-230-3734, Fax: +82-43-230-4087, E-mail: saeeun@knue.ac.kr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8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77.1%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긍정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또래 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학교 폭력 실태조사(Ministry of Education, 2015)’에 따르면 전체적인 괴롭힘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응답 비율이 2012년 4.5%(청예단, 2014.05.20.)에서 2015년 9.7%로 3년 만에 약 4%p 증가를 보여 다른 유형의 폭력과 다르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의 피해는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고 한다(Lee, 2013).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카따(카카오톡 왕따)’라는 새로운 10대 은어가 등장하였으며, ‘떼카’, ‘카톡감옥’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불링이 행해지고 있다(ajunews, 2013.08.01.). 실제 2012년 대구에서 한 청소년이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khan, 2012.08.27.)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Kim, Park, Gam, & Jin, 2013). 이처럼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이버불링이 또래 괴롭힘의 주요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은 불링의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의 목격자의 행동에 따라 사이버불링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13a; Chu, 2014). 특히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 또래 괴롭힘에 비해 파급되는 시간이 빠르고 대상의 범위가 넓고 사이버불링 상황이 사이버 공간에 오랜 시간 남아있게 되면서 더욱 많은 목격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Lee & Ahn, 2013).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목격자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불링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또래 괴롭힘에서는 목격자를 ‘주변인’이라 부르며 이들 주변인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Ahn & Jin, 2014). 반면에 사이버불링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양자에게만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으로(Cho, 2013a; Kim, 2012; Kim & Min, 2014; Kim & Song, 2013; Lee & Lee, 2013) 사이버불링의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주변인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나 오프라인 또래 괴롭힘에서의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공감, 자기효능감, 귀인, 충동성, 공격성, 사회적 기술,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 Jin, 2014). 이 중 공감 능력이 주요한 변인으로 파악되고 있다(Kim, 2013; Oh, 2010). 공감 능력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 개인 내적인 특성이며 또래 집단 내에서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이끄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의 지지를 받아왔다(Go, 2014; Han, 2014; Kim, 2012). 그러나 사이버불링에서는 공감 능력이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관계형성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삼고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청소년들의 다양한 또래 관계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가정교과에서 지향하는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의 쟁점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 관계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사이버 중독 등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성취기준을 명시하여 청소년이 실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친구 간의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대한 실천적 노력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정 교과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친구 관계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정 교과의 연구 내용은 주로 오프라인 때 괴롭힘이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 관계 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주변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감 능력이 주변인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불링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이버불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가정교과에서 강조하는 건강한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고 청소년기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목격 관련 실태는 어떠한가?
 - 가.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분포는 어떠한가?
 - 나.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목격 후 행동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 다. 개인, 가족, 학교변인별로 사이버불링 목격 후 행동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2. 개인, 가족, 학교 관련 변인 및 사이버불링 경험을 통제하였을 때, 공감 능력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고찰

1. 사이버불링

1인 혹은 다수의 가해자가 소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불링(bullying)’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불링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 질 때 ‘사이버불링’이라 칭한다(Lim, 201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불링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

외에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왕따, 사이버 비행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여 법적적으로는 사이버불링이 아닌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여기고 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3항). 그러나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이버불링의 의미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어(Lee, 2013; Lim, 2013) ‘사이버불링’이 학계에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hin & Ahn, 2013).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 혹은 다수가 특정인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때 괴롭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의사소통 도구는 이메일, 문자메세지, 웹페이지, 채팅방, SNS, 블로그 등을 의미하며 적대적인 행동은 강제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과 SNS 대화창을 이용하여 욕설이나 헐박, 괴롭힘을 가하는 행동, 피해자에 대한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행동, 상대방의 메시지나 대화를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Kim et al., 2013; Kim & Song, 2013; Lee, Hwang, & Yeom, 2013; Lee, 2013).

사이버불링의 유형은 적대적인 행동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이미지 불링, 아이디 도용,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배제, 플레이밍, 사이버 명령, 안티 카페, 사이버 왕따놀이 등이 있다(Cho, 2013b).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불링 유형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 온라인 게임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 발생한다(Shin & Ahn, 2013). 이 중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사이버불링은 개인 대 개인으로 발생하여 주변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마트폰 채팅 어플, 온라인 게임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주변인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주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이 가능한 사이버 불링 상황만을 중점적으로 살펴 고자 한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마트폰 채팅 어플, 온

라인 게임과 같은 매체 환경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비방, 사이버 유포, 사이버 왕따,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추행으로 한정하여 사이버불링 유형을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사이버 비방’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나 욕설, 비속어 등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사이버 유포’는 타인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사이버 왕따’는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거나,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말만 무시하며 유령취급하거나,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계속 초대하여 채팅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초대한 뒤 일제히 폭탄 메시지를 던져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네 번째, ‘사이버 갈취’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나, 데이터를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섯 번째 ‘사이버 성추행’은 성적인 말, 글,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Cho, 2013b; Lee & Lee, 2013).

2. 사이버불링의 주변인 행동 유형

주변인(bystanders)은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¹⁾로, 또래 괴롭힘 상황에 참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제3의 인물(Go, 2014)이나 또래 괴롭힘 상황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으로 정의한다(Lee & Song, 2012; Oh, 2010). 또래 괴롭힘 상황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및 이를 지켜본 주변인이 존재하고 또래 괴롭힘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변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2014). 주변인은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의 행동 유형 중 하나를 보이게 된다. ‘동조행동’은 가해자에게 동조하여 괴롭힘 행동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유형이다. ‘방관행동’은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고도 어떠한 행동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방어 행동’은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고 다양한 도움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취하는 유형을 의미한다(Oh, 2010).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행동은 또래 괴롭힘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Cha & Park, 2011; Park, 1999; Yoon & Lee, 2004). 동조 행동과 방관 행동은 괴롭힘 상황을 지속시킨다. 가해자들이 주변인의 동조 행동을 심리사회적인 보상으로 여기고 가해행동을 강화시킨다(Cha & Park, 2011). 자신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집단이 있으므로 타인이 보기에도 자신들의 행동이 수용 가능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가해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이다(Choi, 2001).

반면에 방어 행동은 가해자에게 보복의 두려움을 갖게 하여 처벌자로 기능함으로써 괴롭힘 상황을 감소시킨다(Yoon & Lee, 2004). 괴롭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57%의 경우에서 약 10초 내에 가해행동이 중지되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Hawkins et al., 2001; Lee & Song, 2012에서 재인용). 또한 방어 행동은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어자를 친구로 둔 피해학생의 경우 방어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없는 경우 보다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방어 행동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Lee & Song, 2012). 이처럼 주변인이 동조 행동이나 방관 행동이 아닌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또래 괴롭힘을 중재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인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동조 행동이나 방관 행동이 아닌 방어 행동을 하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불링의 경우 주변인의 숫자가 오프라인 괴롭힘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Smith, 2012; Chu, 2014에서 재인용) 더욱 주변인 행동이 중요하다.

이처럼 사이버불링 상황의 주변인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 상황에서의 주변인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태를 조사하거나(Lee, Shin, & Han, 2014) 유사 사이버 상황에서의 주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Jung, 2014; Hong, 2014)만 있을 뿐이다. 다만 Lee와 Oh(2012)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에도 방관자 입장에 있는 학생이 많을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며 Mishna et al.(2010)의 연구에서 방관자가 있을 경우 사이버불링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Cho, 2013a에서 재인용) 사이버불링에서의 주변인

1) ‘bystanders’는 국내연구에서 주변또래(Go, 2014; Kim, 2012; Park, 2014), 동조집단(Kim, 2003), 동조 행동 집단(Ryu, 2006)으로 번안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Han, 2014; Kim, 2013; Lee, 2014; Oh, 2010) ‘bystanders’는 주변인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이다(Ahn & Jin, 2014).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감 능력과 사이버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

공감 능력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히 타인이 느끼는 불행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게 하므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정서적 기제가 된다(Park, 1997).

공감능력과 사이버불링의 주변인 행동의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는 주변인 행동 유형 중 방어 행동이 높은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2014; Kim, 2012; Kim, 2013; Kim & Lee, 2011; Shin, 2012). 주변인 행동 유형에 따른 공감 능력의 차이를 본 Kim(2012)의 연구에 따르면 방어행동을 보이는 주변인이 방관 행동이나 동조 행동을 보이는 주변인보다 공감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 능력이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Han(2014)의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방어 행동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공감 능력이 낮을수록 동조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 능력이 주변인의 방어 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Kim과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방어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은 단일한 차원의 개념이라기 보다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Oh, 2010),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다차원적인 공감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Go, 2014; Han, 2014; Kim, 2012; Kim, 2013; Lee, 2014; Oh, 2010; Shin, 2012). 공감 능력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만큼 주변인 행동 유형과 맺는 관련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Kim, 2013; Shin, 2012). 인지적 공감 능력이나 정서적 공감 능력과 주변인의 행동 유형의 관련성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Kim, 2013; Shin, 2012) 이는 연구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적 공감 능력이나 정서적 공감 능력과 주변인의 행동 유형이 맺는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Lee, 2014; Oh, 2010)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상의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주변인의 행동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연령이나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공감 능력이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4. 사이버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연령(Kim, 2013; Lee, 2014; Oh, 2010; Shin, 2012) 및 사이버 공간 이용 시간이 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Min, 2014; Kim & Song, 2013; Lee et al., 2013; Shin, Kang, & Jung, 2014). 따라서 사이버 공간 이용 시간은 사이버불링 상황의 증가 여부에 영향을 주며 이는 사이버불링 목격자인 주변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특성으로서는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있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주변인의 행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hn & Jin, 2014; Kim, 2012; Lee, 2014; Park,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 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동조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가족 간의 화목도가 높았으며(Ryu, 2006), 가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방관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12). 또한, 학교는 청소년이 사회활동을 하는 주된 공간이며(Ahn & Jin, 2014)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또래 집단의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Han, 2014) 사이버불링의 주변인 행동 유형에 학교 관련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 Park, 2011; Ha, 2014; Oh, 2013; Shin, 2012; Yoo, Lee, & Lee, 2013).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교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은 동조 행동을 많이 하였으며(Yoo, Lee, & Lee, 2013), 방어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학교 풍토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였다(Cha & Park, 2011). 또한 학급응집력이 높거나(Ha, 2014) 학교 소속감을 더 느낄수록 방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13).

한편, 사이버불링의 가해 경험이나 피해 경험이 주변인으로서의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사이버불링의 가해나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사이버불링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해나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경험 여부가 사이버불링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괴롭힘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은 특정한 또래 집단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ee et al., 2014). 즉, 주변인과 가해자 혹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주변인의 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가해학생이 친한 친구인 경우에는 모르는 아이인 경우에 비해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4). 또한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에서 어느 한 쪽과 친한 경우 친한 쪽 편을 들어 주기도 하며, 주변인이 목격한 가해자 혹은 피해자와 같은 동료 의식을 지닌 경우에는 지지하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4).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 및 사이버 공간 특성 인식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통제 변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및 사이버 공간 이용 시간이라는 개인 특성 변인과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와 같은 가족 특성, 학교 생활 만족도를 통한 학교 특성 및 사이버불링 경험 특성을 통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이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 남부 지역의 성남, 안양, 안산, 의왕, 시흥, 화성, 김포, 이천의 8개 지역의 학교와 경기 북부 지역의 고양, 의정부, 파주의 3개 지역의 총 11개 학교를 편의 표집하여 총 68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64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5.3%).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59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을 진행하기 전 IRB(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2015년 6월 15일에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 보호 대책, 연구 대상자의 정보 활용 동의, 설문 내용 등에 관한 연구계획서의 신청서를 보내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2015년 7월 7일에 심의를 통과하여 이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5년 6월 24일에 예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편의표집한 경기도 11개 지역의 중학교에 우편으로 설문을 보내 각 학교의 담당 교사가 1~2개 반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진행하게 하였다. 담당 교사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 내용과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에 비밀 보장에 대해 공지하고 올해 3월부터 조사 시점(9월)까지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응답이 끝난 후 담당교사가 설문지를 직접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 회수하였다.

2. 조사도구

1) 사이버불링의 목격 여부

사이버불링 목격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Lee et al.(2014)의 사이버불링 실태에 관한 측정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측정문항이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이버불링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가해 상황과 피해 상황을 구분지어 주변인 경험을 측정하였다. 사이버불링 상황은 사이버 비방, 사이버 유포, 사이버 왕따,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추행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없다’(0), ‘아는 친구 중에서 본적이 있다’(1), ‘친한 친구 중에서 본적이 있다’(2)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사이버불링 상황에 대해 1이나 2

로 코딩된 대상자를 사이버불링 상황의 목격 경험이 있는 주변인으로 분류하였다.

2) 사이버불링의 주변인 행동 유형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주변인 행동을 동조 행동, 방관 행동, 방어 행동으로 구분했다. 주변인의 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 et al.(1996)이 고안한 참여자 유형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바탕으로 Seo(2008)가 구성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Seo(2008)의 척도는 사이버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또래 괴롭힘 척도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1인이 척도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토한 후,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이중언어자 1인의 역번역 과정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학교 3학년 3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방관 행동, 방어 행동, 동조 행동에 대한 문항은 각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관 행동은 사이버 불링 상황을 보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모르는 척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방어 행동을 사이버불링 상황의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동을 의미하며 동조 행동은 사이버불링 상황의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사이버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방관 행동 .923, 방어 행동 .893, 동조 행동 .8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이버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 구분은 Salmivalli et al.(1996)의 방법을 따랐다. 먼저, 방관 행동, 방어 행동, 동조 행동에 해당하는 각각의 6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각각의 평균 점수를 표준화(평균=0, 표준편차=1)하였고, 표준화된 점수가 0보다 높고 다른 행동 유형의 점수보다 높을 때 특정 행동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방관 행동의 점수가 평균(0)보다 높고 동조 행동과 방어 행동의 점수보다 높으면 방관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Seo, 2008).

3)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M.H. Davis(1980)의 대인관계적 반응 지수(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연구자들이 번안하였고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이중언어자의 검토를 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공감 능력은 크게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으로 나뉘며 인지적 공감 능력의 하위 영역에는 ‘관점 취하기(7문항)’, ‘동일시(7문항)’, 정서적 공감 하위영역에는 ‘공감적 관심(7문항)’, ‘개인적 고통(7문항)’이 포함되었다. 공감 능력 척도의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 각각의 하위 영역 당 점수의 범위는 4-28점이며, 전체 문항 중에서 부정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각각의 하위영역 별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의 공감 능력 하위 영역 별 신뢰도 계수는 관점취하기 .612, 동일시 .783, 공감적관심 .652, 개인적고통 .724로 나타났다.

4) 통제 변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공감 능력 및 사이버 공간 특성 인식 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중 성별은 가변수로 측정하고(남=0, 여=1), 연령은 학년을 통해 측정하였으며(중1=1, 중2=2, 중3=3). 사이버 공간 이용 시간은 ‘채팅 어플,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의 개방형 문항에 대해 평일과 주말을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가족 관련 변인인 부모 관계 만족도는 ‘부모님과 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운 편(1)’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편(5)’이라는 5점 리커트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 관련 변인인 학교 생활 만족도는 학교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이라는 5점 리커트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이버 불링 관련 변인 중 사이버 불링의 가해와 피해 경험은 각각 ‘있다(1)’ 혹은 ‘없다(0)’ 중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사이버 불링 당사자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친한 친구가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나 피해

자인 경우를 한 번이라도 목격한 경우는 0, 아는 친구가 사이버 불링 당사자인 경우만 목격한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IV. 연구결과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공감 능력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사이버불링 목격 실태와 사이버불링 목격 후 주변인 행동 유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주변인 행동 유형 분포가 개인(성별, 학년), 가족(부모관계 만족도), 학교(학교생활 만족도), 사이버불링 경험 특성(사이버불링 목격 정도,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 및 피해 경험)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공감능력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은 연속변수가 아닌 3개의 유형이 있는 범주형변수이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개인, 가족, 학교 관련 변인 및 사이버불링 경험 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공감 능력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사이버불링 경험 실태

1) 사이버불링 목격 여부 실태

연구 대상자들의 사이버불링 목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다섯 가지 사이버불링 상황에 대해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복수로 응답한 결과를 빈도분석 한 결과는 <Table 1>와 같다.

분석 결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 응답자는 3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2%가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나 욕설, 비속어 등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비방'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297명, 49.9%), 45.0%(268명)의 응답자가 '타인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유포'의 상황을 목격하였고 응답하였다. 또한 41.5%(247명)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왕따'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4%(68명)의 응답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나, 데이터를 갈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갈취'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5.4%(151명)의 응답자는 '성적인 말, 글,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성추행'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사이버불링 유형 중에서 중학생들이 가장 흔히 목격하는 사이버불링의 종류는 '사이버 비방'이었고, '사이버 유포', '사이버 왕따', '사이버 성추행'

Table 1. Types of Observed Cyberbullying

		(N=595)	
		N	%
	cyber slander	297	49.9
	cybe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268	45.0
	cyber outcast	247	41.5
	cyber extortion	68	11.4
	cyber sexual harassment	151	25.4
total	Two or more observed cyberbullying	364	61.2

‘사이버 갈취’의 순으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응답자들이 사이버불링 상황을 얼마나 다양하게 마주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사이버불링 상황에 대해 목격한 적이 없는 경우는 0, 한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는 경우는 모두 1로 리코딩하여 5개 문항값을 합한 점수(0점~5점)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1~2점(M=1.7, SD=1.67)정도로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 가지 사이버불링 상황 중 1~2가지의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섯 가지 사이버불링 상황 중 세 가지의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응답자가 16.8%(100명)로 가장 많았고, 6.1%(36명)의 응답자는 다섯 가지 상황을 모두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불링의 직접적인 가해나 피해 경험과 사이버불링의 목격 경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9%(47명)였고 이 중 사이버불링 목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4명으로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3.6%는 사이버불링 목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6%(45명)이며 이 중 사이버불링 목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9명으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6.7%가 사이버불링 목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9%(23명)였으며 이 중 사이버불링 목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1명으로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응답자의 91.3%가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90%는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이버불링 목격 후 행동 유형 실태

사이버불링 상황을 적어도 하나 이상 목격한 적이 있는 주변인 응답자 364명을 사이버불링 상황에서의 3가지 행동 유형(방관 행동, 방어 행동, 동조 행동) 중 어떠한 행동 유형을 보였는지 구분한 결과, 방관 행동이 100명(16.8%), 방어 행동이 91명(15.3%), 동조 행동이 89명(15.0%)으로 나타났으며, 방관, 방어, 동조 행동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주변인은 84명(14.1%)으로 나타났다. 방관, 방어, 동조 행동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역할이 없는 주변인을 제외하고 주변인의 행동 유형이 각각 약 1/3 정도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방관 행동이 다른 유형의 행동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개인, 가족, 학교변인별 사이버불링 목격 후 행동 유형의 차이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가 개인 변인(성별, 학년), 가족 변인(부모관계만족도), 학교 변인(학교 생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분석 결과 개인 변인인 성별과 학년, 가족 변인인 부모관계 만족도에 따라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 주변인은 방관 행동, 방어 행동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동조 행동을, 17.3%는 역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남학생 주변인은 역할이 없는 경우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동조 행동, 방관 행동, 방어 행동 순의 행동 유형을 보여 여학생 주변인의 분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288, p<.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여

Table 2. Frequency of Behavioral Patterns of Bystanders

		N(%)				(N=595)
Witness	bystanders	Never witness	231(38.8)			계
		playing no role	84(14.1)			계
		Outsiding	100(16.8)			계
		Defending	91(15.3)	280(47.1)	364(61.2)	595(100)
		Assitanting	89(15.0)			

(N=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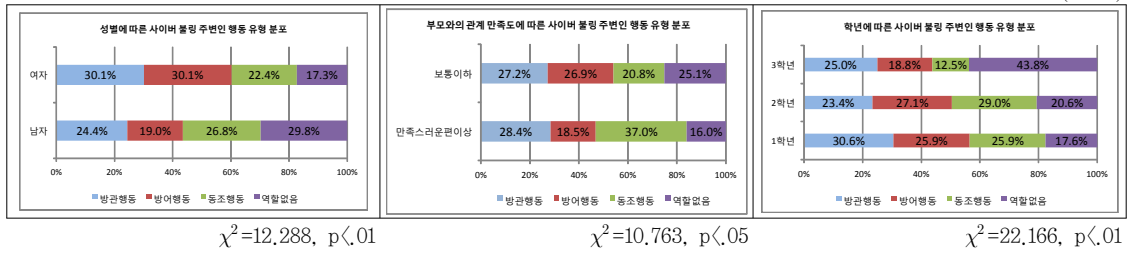


Figure 1. Behavioral patterns of bystanders by gender, grades, & parent-children relationships

학생에 비해 동조 행동 유형 비율이 더 높은 반면(남:26.8%, 여:22.4%),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방어 행동(남:19%, 여:30.1%)과 방관 행동(남:24.4%, 여:30.1%)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족 변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따른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보통 이하 관계만족도를 보이는 경우 만족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0.763,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인 주변인은 방관 행동(27.2%), 방어 행동(26.9%), 동조 행동(20.8%), 역할없음(25.1%)의 순의 행동 유형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스럽거나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주변인은 동조 행동(37.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관 행동(28.4%), 방어 행동(18.5%), 역할없음(16.0%)의 순을 보였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주변인의 동조 행동 비율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주변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스러운편: 37.0%, 보통이하:26.9%) 반면에 방어 행동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스러운편:18.5%, 보통이하:26.9%).

학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 분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22.166, p<.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주변인은 방관 행동(30.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어 행동과 동조 행동이 25.9%, 역할이 없는 응답자가 17.6%였다. 2학년 주변인은 동조 행동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9.0%), 방어 행동(27.1%), 방관 행동(23.4%), 역

할없음(20.6%) 순의 행동 유형을 보였다. 3학년 주변인은 역할이 없는 주변인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3.8%였으며, 방관 행동(25.0%), 방어 행동(18.8%), 동조 행동(12.5%)의 순의 행동 유형을 보였다.

3. 공감 능력이 사이버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공감 능력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방어 행동 집단을 기준 범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방어 행동에 비해 방관 행동을 보이는 데는 개인, 가족, 학교 관련 변인 및 사이버 불링 관련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정서적 공감 능력의 하위 변인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가족, 학교 관련 변인 및 사이버 불링 경험을 통제 하였을 때, 응답자의 ‘공감적 관심’ 점수가 높아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방관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29, p<.001$). 즉,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공감적 관심’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방관 행동을 할 가능성이 2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B)=.75, p<.001$). 반면, 정서적 공감 능력의 다른 하위 변인인 개인적 고통의 경우, 점수가 높아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방관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3, p<.05$). 다시 말해,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았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개인적 고통’의 점수가 1점 높아

Table 3. The Effects of Empathy on Behavioral Patterns of Bystanders(N=364)

		Outsider group			Reinforcer group		
Reference group= Defender group		B	SE	Exp(B)	B	SE	Exp(B)
constants		1.89	1.23		2.23	1.28	
Individual related var.	sex (ref.=male)	-0.01	0.35	0.99	0.36	0.37	1.44
	Grade	0.01	0.23	1.01	0.08	0.25	1.08
	Internet time of use	-0.35	0.31	0.71	-0.16	0.32	0.86
Family related var.	Satisfaction with parents	-0.22	0.20	0.81	-0.05	0.22	0.95
School related var.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0.13	0.19	0.88	-.44*	0.20	0.64
Cyberbullying related var.	Experience of bullying (ref. = none)	-0.70	0.63	0.49	-1.58*	0.61	0.21
	Experience of victimization (ref.= none)	0.96	0.59	2.62	0.91	0.61	2.48
	Emotional closeness with the bully or the victim (ref. = very close friend)	-0.07	0.34	0.93	0.30	0.37	1.35
Cogni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0.05	0.07	1.05	-0.11	0.08	0.90
	Cognitive Empathy	.011	0.09	1.12	0.11	0.09	1.12
Emotional Empathy	empathic concern	-.29***	0.07	0.75	-.30***	0.07	0.74
	personal distress	.13*	0.06	1.14	0.08	0.06	1.08
		-2LL=532.319					
		$\chi^2=82.175(df=24,p=.000)$					

* p<.05, ** p<.01, *** p<.001

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방관 행동을 할 가능성이 1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Exp(B)=1.14, p<.05), 같은 정서적 측면의 공감 능력이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 행동을 보이는 데는 학교 생활 만족도,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 정서적 공감 능력의 하위 변인인 ‘공감적 관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 행동을 보이는 데 있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44, p<.05). 즉,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 행동을 할 가능성이 3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64, p<.05).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58, p<.05). 즉,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80% 적었다

(Exp(B)=4.94, p<.01). 또한, 응답자의 ‘공감적 관심’ 점수가 높아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30, p<.001). 즉,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공감적 관심’ 점수가 1 점 높아질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동조행동을 할 가능성이 2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74, p<.001).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사이버불링 목격 실태 및 사이버 불링목격 후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행동 유형이 개인(성별, 학년), 가족(부모관

계 만족도), 학교(학교생활 만족도) 관련 특성과 사이버불링 경험 특성 변인(사이버불링 경험 정도,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 및 피해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으며, 공감 능력과 사이버 공간 특성 인식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을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불링 상황을 사이버 비방, 사이버 유포, 사이버 왕따, 사이버 성추행, 사이버 갈취로 구분하여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경험에 대해 측정된 결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 응답자는 3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유형 중에서 중학생들이 가장 흔히 목격하는 사이버불링의 종류는 ‘사이버 비방’이었고, ‘사이버 유포’, ‘사이버 왕따’, ‘사이버 성추행’, ‘사이버 갈취’의 순으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또한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이버 비방’의 경우 연구대상 중학생의 절반이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이버 유포’나 ‘사이버 왕따’의 경우에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를 상회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사이버불링 상황을 접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중학생 응답자의 1/4이 사이버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사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된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 사이버불링 상황을 어느 정도 다양하게 목격하였는지 측정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사이버불링 상황을 2~4개 정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불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 주변인 364명을 사이버불링 상황에서의 3가지 행동 유형(방관 행동, 방어 행동, 동조 행동) 중 어떠한 행동 유형을 보였는지 구분한 결과, 방관 행동이 100명(16.8%), 방어 행동이 91명(15.3%), 동조 행동이 89명(15.0%)으로 나타났으며, 방관, 방어, 동조 행동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주변인은 84명(14.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가 개인, 가족,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 변인인 성별과 학년, 가족 변인인 부모관계 만족

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방어 행동과 방관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동조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오프라인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피해 학생을 도우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Lee, Yoon, Kim, & Heo (2014)의 연구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방관 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동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Han(201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해서는 남녀 청소년에게 확립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남녀의 서로 다른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황에서 예방교육적 효과가 클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1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방관 행동 비율이 높았으며, 2학년은 동조 행동의 비율이, 3학년은 역할이 없는 주변인의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유형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족 변인인 부모관계 만족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예 상과는 다르게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중학생이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후에 오히려 가해자를 동조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에게 부모-자녀 관계의 성격이 또래 관계의 성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지라도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더라도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에게 맞는 또래 관계 교육을 위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다각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와의 관계 특성은 중학생 자녀의 주관적인 평가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특성을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통해 이들 관계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사이버불링 경험 특성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정도와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 유무에 따라 사이버 불링 주변인 행동 유형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불링 상황을 더 많이 목격한 주변인이 적게 목격한 주변인에 비해 동조 행동 비율이 높았으며 방어 행동의 비율은 낮았다. 이를 통해 중학생 청소년이 사이버불링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장난스럽게 생각하고 또래 괴롭힘에 대해 무심경해 지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괴롭힘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주변인이 그렇지 않은 주변인에 비해 동조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방어 행동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를 통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직접적인 가해 행동을 한 청소년이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했을 때 또래 가해자의 폭력 행동을 동조하며 사이버불링 상황을 지속시키게 되므로 결국 또래 괴롭힘이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이며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또래 문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감 능력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감 능력은 인지적 측면인 ‘관점 취하기’와 ‘동일시’, 정서적 측면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느끼는 ‘공감적 관심’이 클수록 방어 행동에 비해 방관 행동이나 동조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또래 괴롭힘에서 ‘공감적 관심’이 주변인의 방어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Han, 2014; Kim, 2012; Kim, 2013; Oh, 2010)와 일치하며, 인지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과 타인의 불행에 대한 정서적 감응 모두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Rueckert et al., 2011; Kim, 2012에서 재인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지적 공감보다 정서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론(Hoffman, 1984; Kim, 2012에서 재인용)을 지지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직접 체험하여 피해자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반면에 같은 정서적 측면의 공감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았을 때 불안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개인적 고통’의 경우 ‘개인적 고통’을 강하게 느낄수록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방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인으로서 또래 괴롭힘을 목격할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주변인이 피해자를 돕는 데 많은 두려움을 주어 대다수의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돕기보다는 가해자의 행동을 부추기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함으로써 괴롭힘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Janson & Hazler, 2004; Lee et al., 2014에서 재인용). 또한 타인의 고통을 보고 불안, 긴장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지나치게 높게 느낄 때, 자기 지향적 정서에 압도되어 타인의 고통을 회피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Zahn-Waxler & Radke-Yarrow, 1990; Kim, 2012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사이버 불링 상황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정서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염려나 연민을 느끼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은 주변인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겪게 되는 불안이나 불편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또래 괴롭힘에서 정서적 공감능력이 주로 ‘공감적 관심’에만 주목하여 피해자를 염려하고 연민을 느끼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Han, 2014; Kim, 2012; Oh, 2010) 이 연구를 통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보다 정교화하여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가정교과에서의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불링에 관한 관심이 급증한 만큼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해자나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에서 사이버불링 목격 실태 및 목격 후 행동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불링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응답자의 60% 정도가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사이버불링 상황을 사이버 비방, 유포, 왕따, 갈취, 성추행 등

의 다섯 가지 상황으로 구분지어 측정하여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환기시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는 성별, 학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사이버불링 목격 정도,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및 사이버 환경 등의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하는 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동기를 추론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와 감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인 공감 능력보다는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더욱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이버불링 주변인이 사이버불링 상황을 보고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높게 느낄수록 타인의 고통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정서적인 공감 교육은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주변인의 감정 조절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보다 쉽게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되므로 가족 간의 대화, 친밀한 친구 관계, 건전한 여가 등을 통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 될 2015 실과(기술·가정)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기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 중독, 성폭력 등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실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과 교육에서 오프라인 또래 관계에서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토대로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친구 관계, 정서적인 공감 교육, 청소년기 바람직한 정서 조절, 사이버 중독 예방 등이 주요 학습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학습, 실천적 문제해결학습, 역할극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의 문제가 나타나 측정상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자기보고식 측정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준해서 반응함에 따라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Asher, Hymel, & Renshaw, 1984; Han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과 또래지명법을 통한 설문을 동시에 측정한다면 주변인의 행동 유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 연구는 경기도 11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지닌 초기 단계의 연구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진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H-Y & Jin Y-E (2014). Bystanders role in the context of bullying research trends and tasks. *The Korean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22(4), 95-117.
- Aju News(2013.08.01.). Damage by internet trolls, appears in reality. Retrieved from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31000334>.
- Cha Y-H & Park K-J (2011). School Children's Roles and Social Understandings in Peer Bullying.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1), 47-67.
- Cho Y-O (2013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Korea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2(4), 304-327.

- Cho Y-O (2013b). *새사이버불링 유형과 문제점.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미래창조과학부).*(pp5-15)
- Choi Y-H (2001). *Study on the Behavior of Conformity and Self-Esteem of Bullies-victi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u B-Y (2014). Methods for preventing cyber bullying in m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7(1), 97-119.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Go H-I (2014). *The Differ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Systems Based on the Roles of Bystanders in Bullying Situ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 Ha I-J (2014). *The Effects of Classroom Cohesion and Perceived Classroom Norm on Participation Behavior in Peer Bullying,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Korea.
- Han H-N (2014). *The Relation between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to Bullying, Gratitude, Empathy, and a Sense of School Belong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S-J (2014). *Empathy, Fairness, Intention in Helping Behavior and Social Self-efficacy on Bystanders' Helping Behavior in a Simulated Cyber Bullying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Jung A-H (2014). *An Analysis of Response as Bystanders of Middle School Girls in a Simulated Cyber Bullying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im B-S, Park J-S, Gam D-U, & Jin S-K (2013). The Corelation Research between Cyberbullying and Information Media Use - With Focus on Internet and Mobile Phone Us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6(5), 17-29.
- Kim E-A & Lee S-Y (2011). The Roles of Empathy, Self-efficacy, and Beliefs in Classroom Norm in Defending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4(1), 59-77.
- Kim E-K (2012). *Study on the Predictors of Youth's Cyber Bully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D & Song B-H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yber Bullying on School Viole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9(3), 87-111.
- Kim H-J (2003). The Types of the Conformity Groups in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5(2), 103-118.
- Kim H-R (2013). Differences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byparticip ant roles in bullying among 5 th and 6 th grade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1-20.
- Kim H-Y & Min J-S (2014). A Study on the Factors of Youth Cyberbullying: Focused on Off-line Bullying and Social Media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8(4), 323-333.
- Kim J-E (2012). *The differences of empathy,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group norms according to the role of bystanders in bullying situations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yunghyang Shinmun(2012.08.27.).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bullying for youth. Retrieved from http://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72117465&code=990304
- Lee C-H & Lee K-S (2013). An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cyber bullying by youth : A focus on network characteristic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259-285.
- Lee C-H, Shin N-M, & Ha E-B (2014). A Study on the Situa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Measures to Prevent I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14-R07.*
- Lee G-M et al. (2014). *The theory and practic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Soeul: Hakjisa.

- Lee J-H & Ahn S-C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yberbullying. *Dispute Resolution*, 11(1), 133-157.
- Lee J-S (2014). *The influence of the empathic ability and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on bystander role types among middle school girls in bullying situation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Lee J-W, Yoon S-Y, Kim H-J, & Heo T-G (2014). The Roles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Popularity in School Bullying.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1(1), 109-135
- Lee S-D, Hwang S-G, & Yeom D-M (2013). The Exploratory Research on Recognition and Actual Condition of Cyber Bullying: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Uiryeonggun.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33, 120-145.
- Lee S-G & Oh I-S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Off-line Bullying and Cyber-bully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2), 137-161.
- Lee S-Y & Song K-H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ocial Self-Efficacy, Defending and Outsider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393-415.
- Lee S-Y (2014). The Roles of Empathy, Social Self-efficacy, and Perceived Norms on Defending Behaviors to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89-112.
- Lee W-S (2013). A Study on Cyberbullying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5(3), 91-118.
- Lim S-S (2013). Anti-Cyberbullying Law and Anti-Cyberbullying Education: Cases of Korean Anti School Violence Law. *Korea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91, 107-125.
- Ministry of Education(2015). The 2nd a field survey on school violence.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1&encodeYn=Y&boardSeq=61498&mode=view>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3). Survey on youth media use.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tPage=1&key_type=reg_depart&key=매체&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3894.
- Oh I-S (2010).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to Bullying: A Focus on Empathy and Aggress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1), 45-63.
- Oh J-W (2013). *The influence of classroom-level sense of community on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situ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K (1999). *A Study on the Process of Bullying and the Roles of the Class Members in it : Focused on the cases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H (2014). The impact of Boy's Moral Emotion on the Participants' Roles in School Bullying situations :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2(4), 107-120.
- Park S-H (1997).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emsa
- Ryu K-H (2006). The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Conformity Behavior in Bully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2), 139-154.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eo M-J (2008). Participation in Bullying: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79-95.
- Shin M-J, Kang M-J, & Jung I-J (2014). The Mixed Methods Research on Cyber Verbal Bully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 483-510.
- Shin N-M & Ahn H-S (2013). Cyberbullying among Korean adolescents : Facts and factors related to victimization

and offending experiences.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26(4), 1-21.

Shin N-M (2012). Empathy and bullying: How are they related in explaining the types of bullying participations among adolescents,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14(4), 24-45.

Yoo G-S, Lee S-C, & Lee H-M (2013).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Participant Roles of School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63-89.

Yoon S-W & Lee Y-H (2004). The effects of the peer-support program for the Outsiders fo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271-292.

교육부(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청예단(2014.05.20.). 2013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blog.naver.com/bakbht/220007023211>에서 2015년 4월 27일 검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3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00&efYd=20141119#0000>에서 2015년 4월 21일 검색.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환경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또래 괴롭힘에서 사이버 불링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므로, 중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목격 실태와 목격 후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며, 중학생의 공감 능력이 목격 후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11개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의 총 595명 중학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61.2%가 다섯 가지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이버 비방을 가장 흔히 목격하였고 유포, 왕따, 성추행, 갈취 순으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주변인은 방관 행동, 방어 행동, 동조 행동, 역할 없음 순의 행동 유형을 보였으며 이러한 행동 유형은 성별, 학년, 부모 관계 만족도, 사이버 불링 목격 정도,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정서적 측면의 공감 능력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정교과에서의 시사점은 첫째, 응답자의 약 2/3 정도가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사이버 비방, 유포, 왕따, 갈취, 성추행 등의 사이버 불링 상황을 다양하게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환기시켰다. 또한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 유형 분포가 성별, 학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사이버 불링 목격 정도,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및 사이버 환경에서의 교육이 다각도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중요하지만,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부정적 공감 정서는 방어 행동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정서적인 공감 교육은 감정 조절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09월 18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12일